



 <p>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</p> <p>http://www.emerics.org/</p> <p>2018. 09. 21 인도네시아</p>	<p>「이슈&트렌드」</p> <p>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, 20년래 최고치 기록</p> <p>작성 신민이 전문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)</p>
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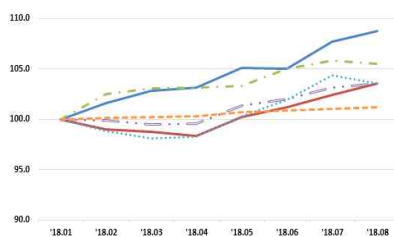
□ 2018년 9월 5일 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4,927을 기록함.¹⁾

- 이는 2018년 1월 2일 달러 대비 루피아화 환율인 13,542에서 약 10% 상승한 수치임.
- 현재 환율은 9월 5일 최고치 경신 이후 소폭 하락해 9월 14일 현재 14,700선을 유지하고 있음.

□ 이는 △ 미국 금리 인상 △ 미·중 무역갈등 심화 △터키 리라화 폭락에 따른 신흥국 불안 확대라는 공통 요인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△ 경상수지 적자 확대 △ 높은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 등 국가 특징적 요인에 기인함.

-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주요 국가 중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, 2018년 상반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더욱 확대됨.²⁾
 - 인도네시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8년 1, 2분기 각각 2.2%, 3.0%를 기록하며, 2017년 1, 2분기 0.9%, 1.9%에 비해 확대됨.³⁾
- 2018년 1월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국채 보유액은 870조 루피아(66조 원)로 전체 국채의 41.3%에 달했으나, 외국인 매도 증가로 8월 37.6%로 감소함.

그림 1. 동남아 주요국
달러 대비 환율 추이



주: 2018년 1월 환율을 100으로 기준하여 저자 계산.
자료: CEIC(검색일: 2018.9.14).

그림 2. 인도네시아
루피아화 환율

(단위: 달러대비 루피아화)



자료: CEIC(검색일: 2018.9.11).

그림 3. 인도네시아
외환보유고

(단위: 십억 달러)



자료: CEIC(검색일: 2018.9.11).

1) 역대 최고치는 1998년 6월 외환위기 당시 15,250임.
2) 동남아 주요 국가는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를 제외한 7개국임.
3) 2018년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동기대비 99.8% 증가한 137.5억 달러로 집계됨.

그림 4. 인도네시아 경상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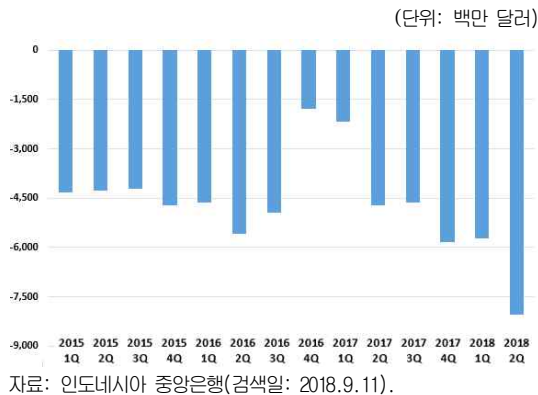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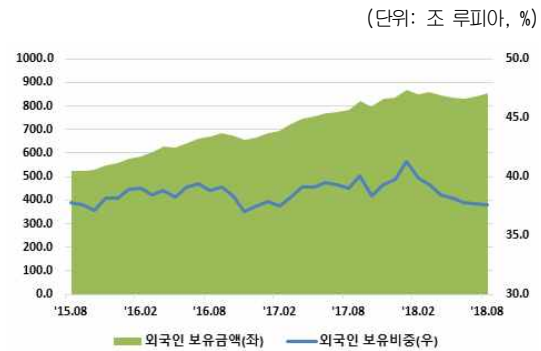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 인도네시아 국채 외국인 보유비중



□ 환율 안정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, 외환시장 개입, 수입관세 인상 계획 발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섬.

-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6~2017년에 걸쳐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왔으나, 환율 안정을 위해 2018년 5~8월 간 기준금리를 125bp 인상함(4.25→5.50%).
- 특히 2018년 5월, 6월에는 이례적으로 각 50bp씩 기준금리를 인상함.
-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함에 따라 현재 외환보유고는 연초 대비 10.6% 감소한 1,179억 달러임.
- 2018년 9월 초 정부는 이달 내 수입억제 및 환율 안정을 목표로 1,147개 소비재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함.⁴⁾

□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약세가 한동안 지속될 수는 있으나, 최근 견고한 경제성장세, 낮은 단기 외채 비중⁵⁾,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에 따라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 같은 위기로는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함.

- 2018년 9월 5일 EIU는 향후 수개월간 루피아화 약세가 지속될 예정이나, 2019년에는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함.⁶⁾
- 2018년 9월 초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현재 환율 급등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.⁷⁾
- 하지만 제1위 교역상대국인 중국 경제 하방리스크 요인과 유가상승 등이 경상수지 악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루피아화 가치 급락과 외환위기 우려도 공존함. **EMERiCs**

참고자료

Nikkei Asian Review 외 다수 언론보도, 인도네시아 중앙은행, CEIC, EIU 등

4) 수입관세는 기존 2.5~7.5%에서 최대 10%까지 인상될 예정이며, 제조업 원자재는 제외되고 비누, 샴푸와 같은 자국 내 생산가능한 소비재 및 고급차량 등에 대한 관세는 10%로 인상할 계획임.

5) 2017년 인도네시아의 수출액 대비 단기 대외부채는 29.4%임.

6) EIU(2018. 9. 5). "Rupiah buckles to lowest value in decades."

7) Tempo(2018. 9. 11). "World Bank: Indonesia Reacted Well in Facing Rupiah Depreciation."

Nikkei Asian Review(2018. 9. 11). "Widodo turns inward as rupiah slides and election looms."